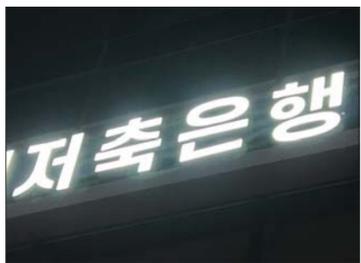


기회 vs 위험... 업황악화 저축은행 M&A 딜레마

전국 저축은행 79곳 총자산 120조
업황부진에 지난해 부터 내리막길
몸집 줄어 유리한 M&A협상 기대
실적개선 전 줄속인수평가 우려도



올해 저축은행 인수합병(M&A)을 두고 적기로 보는 시각과 함께 '위험한 인수'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김정산 기자

저축은행 인수합병(M&A)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전반적인 업황이 얼어붙은 가운데 M&A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업황 부진 속에 나온 매물을 사들일 기회라는 시선이 있는 반면 '위험한 인수'란 분석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총자산은 120조1000억원이다. 직전 분기 대비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업황악화에 여·수신 규모가 쪼그라든 영향이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내리막길이다. 지난 2022년 말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38조6000억원 규모였다. 올 상반기와 18조5000억원 차이다.

금융권 일부에선 저축은행의 몸집이 작아진 만큼 M&A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인수자가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가장 최근 저축은행 인수 논의가 있었던 곳은 상상인저축은행이다. 지난해 우리금융지주가 인수를 위해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6월말 기준 총자산 2조5924억원으로 업계 10위권

이내에 드는 대형사다. PF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진 저축은행 중 한 곳이다. 우리금융 또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고 인수 의향을 보였을 것이라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금융지주와 상상인 간 저축은행 인수전은 결국 구체적인 논의까지 이르지 못한 채 무산됐다.

현재 시장에서 매물로 거론되는 곳은 상상인·애규온·HB·한화·OSB·대원저축은행 등 6곳이다. 대원저축은행을 제외하면 서울과 인천·경기권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 중 올 상반기 흑자를 기록한 곳은 애규온과 한화저축은행이다. 각각 102억원, 47억원씩 벌어들이었다. 업황 악화에도 순이익을 거둔 만큼 매력적인 매물이란 평가다.

가장 최근 있었던 저축은행 인수합병 사례는 4년전인 지난 2020년이다. 우리금융지주가 아주캐피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주저축은행을 함께 품었다. 이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

합병을 심사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와 무관하게 실적 개선이 우선이란 분석이다. 인수합병 이후 발생할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독이 든 설탕판 평가다. 저축은행권에선 업황악화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수 이후 1년간의 위기를 견뎌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인수합병 심사는 다음해 하반기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건전성 확보 방안에 따라 그간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순이익으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수합병 시장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비전이나 매물의 가치보다 실행을 책임질 수 있느냐"면서 "손해가 예고되는 시점에서 진행한 인수합병은 '줄속인수'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카드 News

롯데카드

명샵, 가구 최대 86%
마트, 최대 50% 할인

롯데카드가 추석을 앞두고 할인과 상품권 증정 혜택을 마련했다.

◆ 상품권 최대 80만원 지급

롯데카드는 디지털카드 명샵과 마트에서 추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8일까지 명샵에서 ▲가공 ▲신선 ▲건강 ▲생활 ▲뷰티 등 행사상품 결제 시 5%를 할인한다. 디지털카드 내 발견탭에서 ▲명샵 ▲환승프로젝트 ▲고속버스 등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명샵에서는 가전·가구를 최대 86% 할인한다. 아울러 최대 5만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하고 최대 50개월 무이자할부 혜택도 마련했다. 명샵 상품 구매 시에는 7% 추가 할인 쿠폰 및 최대 48개월 무이자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오는 6일까지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에서 선물세트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80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선물한다. 이어 롯데마트 최대 50%, 롯데슈퍼 최대 30% 즉시 할인 혜택도 준비했다.

NH농협카드

선덕원 찾아 봉사활동
우리쌀 등 물품 후원

NH농협카드가 추석을 앞두고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

◆ 기부와 환경개선 작업 '구슬땀'

NH농협카드는 사회복지법인 선덕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우리쌀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선덕원은 1965년에 창립한 아동복지시설이다.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37명이 거주하고 있다.

봉사활동에는 금동명 NH농협카드 사장과 봉사단원 14명이 참가했다. 후원물품은 농협쌀 600kg과 우리쌀과자 등으로 구성했다.

신한카드

펫 라이프 카드 2종
병원·전용물 할인혜택

신한카드가 펫 라이프(Pet Life)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용카드 한 장에 모두 담았다.

◆ 반려동물 등록부터 장례까지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더 펫(The PET)'과 '신한카드 더 프리미엄 펫' 2종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더 펫 카드'는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전용물에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월 실적에 따라 30% 할인 서비스를 각 월 최대 2만원까지 제공한다. 단 '할인한도 DIY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목별 할인 한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더 프리미엄 펫 카드'는 할인한도를 3만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매년 바우처를 제공한다. ▲마이신한포인트 15만점 ▲펫 전용 쇼핑물 20만원 할인권 ▲반려동물 관련 제품 무료 제공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입주 앞둔 둔촌주공... 대출규제에 임차인·임대인 혼란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두 달 앞뒤
은행 자율규제로 대출한도 축소 우려
매매가 상승폭은 확대... 신고가 경신

서울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를 앞두고 대출 규제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앞서 중도금 대출 허용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둔촌주공 살리기'란 비판까지 나왔지만 갑작스런 대출 조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이번 대출규제는 당국의 정책이 아닌 각 은행 자율로 시행하고 있어 기준과 적용이 제각각이라는 점이 더 문제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에 들어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다음달 12일부터 사흘간 사전점검을 진행한다. 입주는 11월 27

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예정됐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총 85개동, 1만2032세대의 초대형 단지다. 한 아파트 단지로 보면 가장 큰 규모로 기존 최대였던 헬리오시티(9510세대)보다도 2500세대 이상 많다.

큰 규모 만큼 재건축 시작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22년 말 분양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고분양가 시비가 있었고, 2023년 초에는 중도금 대출이 전면 가능해지면서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말도 나왔다. 이전까지는 분양가 9억원 이상의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다. 올해 2월에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둔촌주공이 대표적인 수혜단

지로 꼽혔다.

이번엔 대출 규제가 문제로 떠올랐다. 은행권이 이달 들어 대대적인 대출 조기에 나서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지거나 잔금 대출 한도 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수분양자의 경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일부 은행들이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적용키로 하면서다.

입주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도 정확한 기준은 없다.

둔촌동 A공인중개사 대표는 "아직 한 두 은행에서는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도는 줄어들 수도 있다"며 "문의할 때마다 답변이 달라 대출에 대한 확답을 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다만 매매든, 전세든 시세는 오르는 분위기다. 신축 선호에 지난 1년간 내내 오른 전셋값으로 품귀 현상까지 겹쳤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전용면적 84㎡ 전세매물 호가는 9억원에서 10억원 사이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7억원 후반에서 8억원대의 매물이 있었지만 대부분 소화되면서 임대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다. 매매가는 상승폭이 더 확대되면서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입주권은 전용 84㎡가 지난달 24억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안상미기자 smahn1@

KB금융, 키아프 연계 '화음데이' 개최

업계 최초 리드파트너로 참여

KB금융그룹은 5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인 키아프 서울(Kiaf SEOUL) 2024에서 미술과 음악을 한자리에 즐길 수 있는 'KB 화(畫)음(音)데이'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키아프는 한국 최초의 국제 아트페어로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오며 한국 미술의 세계화에 앞장서왔다. KB금융은 한국 미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더욱 많은 고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금융그룹 최초로 키아프의 리드파트너로 참여했다.

KB화음데이'는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키아프 전시(畫)와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한

클래식 공연인 ▲키아프 프리미어 콘서트(音)로 구성됐다. 키아프의 문화예술 주간에 맞춰 개최되는 'KB 화음데이'에서 관람객들은 미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먼저 다채로운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키아프 전시(畫)에는 국내 갤러리 132곳을 비롯한 전 세계 206개 갤러리가 참여해 국내외 현대미술의 진수를 선보인다.

클래식 공연인 '키아프 프리미어 콘서트(音)'는 키아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음악 공연이다. 피아니스트 김용배가 예술감독을 맡고, 한예종 총장 김대진,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 비올리니스트 신경식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해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들에게 듣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안상미 기자



부산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얼' 투시도.

/롯데건설

롯데건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얼' 완판

롯데건설은 부산시 부산진구에 공급한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얼'이 2개월 만에 100% 계약을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얼'은 견본주택 오픈 당시 3일 동안 1만4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30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374명이 몰려 평균 7.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얼'은 부산시하철 1호선 양정역 역세권

이다. 또 초·중·고교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학세권이다. 부산의 신혼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는 연양(연산~양정)라인에 위치해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연양 주거타운에 선보인 아파트로 많은 성원과 사랑을 받았다"며 "향후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